

元氣·宗氣·營氣·衛氣에 對한 考察

車潤根·金慶鎬·尹鍾和*

I. 序 論

中國의 古代 哲學的인 意味에서 氣는 宇宙萬物을 構成하는 가장 基本的 物質로 認識되어 天地間의 모든 事物은 氣의 運動과 變化에 의해서 生産된다고 하였다^{1) 2) 3)}.

이러한 氣에 대한 概念은 醫學의 領域에 導入되어, 自然界로 부터 받은 氣는 人體를 構成하고^{5) 6) 7) 8)}, 氣의 運動變化가 停止하게 되면 人間의 生命活動도 멈추게 된다⁹⁾.

한편 氣에 대한 名稱은 매우 많으나 針灸學에서는 元氣·宗氣·營氣·衛氣등이 人體의 經絡을 통하여 그 機能이發揮될 수 있고, 病因으로 循環의 障礙가 생겨 여러 症候가 나타난다.

최근까지의 氣에 대한 研究 論文으로는 氣의 考察¹⁰⁾, 元氣恒動生命觀淺義¹¹⁾, 宗氣論說¹²⁾, 衛氣病機初探¹³⁾ 등에 대한 言及이 있고, 人體의 氣는 그 來源과 分布部位가 각각 다르고, 그 生理機能 역시 差異點이 있으며 名稱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 1) 張伯訥: 中醫基礎理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139.
-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p.127.
素問·天元紀大論: “在天爲氣,在地成形,形氣相感而化生萬物矣.”
- 3) 洪元植: 上揭書 p.18.
素問 陰陽應象大論 “積陽爲天,積陰爲地.”
- 4) 洪元植: 上揭書 p.53.
素問 寶命全形論: “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
“天地合氣, 命之曰人.”
- 5) 張伯訥: 上揭書 p.140.
- 6) 李德新: 氣血論 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0年 p.56.
- 7)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p.48.
難經 八難: “氣者, 人之根本也.”
- 8) 洪元植: 上揭書 p.26.
素問 六節藏象論: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
- 9) 喻昌: 醫門法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6.
“氣聚即形成,氣散即形亡.”
- 10) 具炳壽: 氣의 考察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課程 1993年 第三學期 中間發表.
- 11) 張克敏: 元氣恒動生命觀淺義 山西中醫 1993年 9卷 第4期 p.8.
- 12) 牟重臨: 宗氣論說 浙江黃岩市中醫學院 四川中醫 1993年 第9期.
- 13) 傅杰英: 衛氣病機初探 廣州中醫學院 新中醫 1992年 第5期.

또한 여러가지가 있다¹⁴⁾.

이에 論者는 人體의 經氣 中에서 經絡學의 由로 重要한 元氣 宗氣 營氣 衛氣에 對한 生成과 分布, 作用에 對하여 研究 考察한 바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 이다.

II. 本 論

1. 元氣

(1) 基本意味 :

元氣는 “原氣”¹⁵⁾라 하기도 하며 “原”은 原始라는 意味가 있다¹⁶⁾. 元氣는 人體의 가장 根本的이며 重要한 氣로서 人體 生命活動의 原動力이라 한다¹⁷⁾. 元氣는 腎의 氣에 根源을 두고 元陰과 元陽의 氣를 包括한다¹⁸⁾.

또한 元氣의 含義는 廣義와 狹義로 區分할 수 있으며, 廣義의 元氣는 廣範한 人體의 各種의 氣를 말하며, 李東垣은, “脾胃之氣”를

“脾胃之元氣”라 稱하였고, 狹義의 元氣는 腎中精氣에서 化生된 氣를 말하며 難經의 原氣와 相通한다²⁰⁾.

(2) 生成 및 分布 :

1) 生成 :

元氣는 그 根本이 腎에 있고, 元氣의 生成은 腎中精氣가 主要 生成의 成分이 되고 腎中精氣로 부터 化生된다.^{21) 22)}

腎中精氣는 先天之精이 基出이 되고, 後天之精氣의 倍育에 依存하게 된다. 腎中精氣에서 元氣를 化生하는 過程 中 腎中精氣의 本體는 반드시 消耗되거나 減少하므로 脾胃의 運化에 의해 生成된 水谷之精氣와 臟腑의 生理活動에 의해 生成된 “五臟六腑之精”의 부단한 補充과 培養을 받아서 腎中精氣의 新陳代謝의 相對的 平衡을 維持하여 生理機能을 發揮하며 先天之精의 不足으로 化生元氣가 不及하면, “後天之本”의 培養을 통하여 先天之精의 不足을 補充할 수 있다^{23) 24) 25)}.

14) 張伯訥 : 上揭書 p.141.

15) 本間祥白 : 上揭書 pp.47~48.

“諸十二經脈者 皆係於生氣之原. 所謂生氣之原者 謂十二經脈之根本也 腎間動氣也. 此五臟六腑之本 十二經脈之根 呼吸之門 三焦之原.”

16) 江蘇省衛生廳 : 中醫基出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1年 p.18.

17)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85年 p.52. 12~15.

18) 朴贊國 : 臟象學 서울 成輔社 1992年 p.47.

19) 李德新 : 上揭書 p.67.

20) 張伯訥 : 上揭書 p.149.

21) 張介賓 :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8年 p.55.

景岳全書 傳忠錄 : 命門余義 : “命門爲 元氣之根 水火之宅”

22) 本間祥白 : 上揭書 p.242.

難經 三十六難 : “命門者 諸神精之所舍 元氣之所繫也.”

23) 張伯訥 : 上揭書 p.147.

24) 權寧斗 : 東垣脾胃論譯釋 서울 大星文化社 1992年 p.150.

“眞氣 丁名元氣 乃先生之精氣也 非胃氣 不能滋之”.

25) 張介賓 : 上揭書 p.364.

景岳全書 雜證謨 脾胃 : “蓋人之時生, 本乎精血之原 : 人之既生, 由乎水穀之養…是以水穀之海, 本頓先天爲之主 : 而精血之海 又必賴後天爲之資. 故人之自生至老, 凡先天之有不足者, 但得後天 培養之力, 即補天之功, 亦加居其強半. 此脾胃之氣, 所關於人生者 不小”.

2) 分布 :

元氣는 腎間(命門)에서 발생하여²⁶⁾ 27) 全身에 流行하고 到達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一般的으로 氣는 血液 津液과 같이 體内に 運行하는데, 元氣는 三焦를 通過하여 人體의 全身으로 周行하고 內로는 五臟六腑, 外로는 肌膚腠理로 달하며²⁸⁾, 《難經·六十六難》中の “別使”는 使字이며, 三焦는 元氣를 全身에 輸送 分布하는 使이며 元氣는 三焦를 經過하여 五臟六腑 形骸諸竅에 輸布되고 全身의 各部位에 作用하며 生理活動을 推動하는 作用을 한다.

氣는 體内에서 運行할 때 血과 津液에 의지하여 全身을 周流하며, 元氣가 運行하는 通路는 三焦를 通過하고 經絡系統과 理間的 全身을 따라 循行하며, 內로는 五臟六腑, 外로는 肌膚腠理로 到達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機體의 各部分에 作用한다²⁹⁾ 30).

(3) 主要機能

元氣는 人體 構成의 本源으로서³¹⁾ 人體의 生命活動을 維持하는 가장 根本物質이며 人體의 生長과 發育을 推動하고 各臟腑 經絡等 組織氣管의 生理機能을 溫照하고 激發하므로 人體 生命活動의 原動力이 된다³²⁾.

元氣는 生身之精氣가 되고 人間이 生할 때 母가 基本이 되며 父가 根幹이 되어³³⁾ 人間이 태어날 때 전적으로 이 元氣에 依存한다.

命門은 元氣之根이고 水火之宅으로서 五臟의 陰氣는 命門에 의해 滋養되고 五臟의 陰陽氣는 이 命門에 의해 機能이 發揮되는데³⁴⁾, 心이 命門의 機能을 얻어 神明이 나타나고, 肝은 謀慮가 出하며, 膽은 決斷을 出하고, 胃는 受納을 出하며, 脾는 轉輸를 出하고, 肺는 治節을 出하고, 大腸은 傳導의 作用을 出하고, 小腸은 布化를 出하고, 腎은 作強의 作用을 出하고, 三焦는 決瀆, 膀胱은 命門의 機能을

26) 張介賓：上揭書 p.55.

“命門爲 元氣之根”.

27) 喻昌：上揭書 p.60.

“人身血肉之軀 皆陰也. 父母子精時 一點眞陽 先身而生 藏于兩腎之中 而一身之元氣 由之以生 故謂生氣之原.”

28) 本間祥白：上揭書 p.381.

難經 六十六難：“三焦者 原氣之別使也 主通行三氣 經歷於五臟六腑”.

29) 張伯訥：上揭書 p.148.

30) 王叔和：圖註難經脈訣 大孚書局 中華民國 66年 卷四 p.10.

“三焦資始于腎間, …下焦稟原氣…上達至于中焦, 主受五臟六腑 水谷精悍之氣也, 化而爲營衛, 營衛之氣得眞元之氣相合, 主通達 于上焦, 始經歷乎五臟六腑也…故以三焦所留止之處輒以爲原.”

31) 本間祥白：上揭書

難經·三十六難：“氣者, 人之根本也”.

32) 李德新：上揭書 p.69.

33) 類經附翼：氣血論 p.69.

“所以發生吾身者 即眞陽之氣也.”

“所以成立吾身者 即眞陰之氣也.”

34) 張介賓：景岳全書 傳忠錄 p.55.

“命門爲元氣之根 爲水火之宅 五臟之陰氣 非此不能滋 五臟之陽氣 非此不能發.”

받아 收藏을 出한다^{35) 36)}.

元氣는 性命系之라 하여 元氣가 우선 堅固하면 精神이 맑고, 만약 元氣가 微虛하면 神去微去하고, 元氣가 衰渴하면 神去機息한다³⁷⁾.

(4) 病症

腎精은 人體의 生長 發育을 결정하므로 人體의 生長發育之根이 되는데 先天稟賦가 不足하거나 혹은 오래동안 病을 앓고 나면 元氣가 衰하게 되어 人體에 抵抗力이 떨어져 여러가지의 病이 나타나고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十二經脈의 根本인 原氣가 留止하는 곳을 原穴이라 하는데 疾病을 治療할 수 있는 能力은 先天의 原氣, 則 三焦의 氣와 後天의 原氣 即 營 衛氣가 所止하는 原穴을 取하여 五臟 六腑와 全身의 疾病을 治療한다³⁸⁾.

元氣는 腎에서 生成되고 父母의 精으로 부터 小兒가 出生하여 後天의 培養을 通하여 健康을 維持하는데, 만약 父의 精이 不足하고 母의 氣血이 衰弱하면 五軟, 五遲, 解乳, 신

陷等의 先天不足의 症狀이 나타난다^{39) 40)}.

老年에 이르게 되면 腎精이 衰退하여 形體는 점점 老衰하고 全身의 筋骨運動은 靈活하지 못하고 齒牙가 脫落되어 老衰現象이 나타난다. 가령 腎精이 虧少하면 人體의 生長發育에 影響을 미쳐 生長發育에 障礙가 생겨 發育이 遲延되고 筋骨이 軟한 症狀이 나타난다⁴¹⁾. 또한 感情의 變化로 인하여 元氣의 消耗를 招來할 수도 있다⁴²⁾.

歷代 醫家들은 治病에 있어 固護元氣를 重視하였으며 先天元氣가 不足할 경우 後天元氣를 培養하는데 힘을 쏟고⁴³⁾, 元氣의 存亡이 生命의 存亡이라 認識하였다⁴⁴⁾.

2. 宗氣

(1) 基本意味 :

肺로 吸入된 清氣와 脾胃 生化의 水谷之精氣가 結合하여 形成되고, 肺에서 形成되고 胸中에서 聚合된 것을 말하여 宗氣라 하며, 胸中은 膻中을 稱하며 全身의 氣가 최고로

35) 陳士鐸: 石室秘錄 서울 大星文化社 1993年 p.224. 6~10

“心得命門 而神明有主 始可而應物 肝得命門 而謀慮 膽得命門而 決斷 胃得命門而能受納 脾得命門而能轉輸 肺得命門而能治節 大腸得命門而能傳導 小腸得命門而能布化 腎得命門而作強 三焦得命門而決瀆 膀胱得命門而收藏”.

36) 姜鎮春: 譯註皇帝內經素問 松山出版社 1982年 pp.124~132.

37) 李德新: 上揭書 p.70.

38) 本間祥白: 上揭書 p.381.

39) 江育仁: 中醫兒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年 pp.258~259. p.266.

40) 丁至萬: 東醫小兒科學 서울 杏林出版 1985年 pp.275~276. pp.278~279.

41) 李德新: 上揭書 p.69.

42) 權寧斗: 上揭書 p.87.

“喜怒哀恐 損耗元氣 即脾胃氣衰 元氣不足 而心火獨盛.”

43) 權寧斗: 上揭書 p.22.

“元氣之充足 皆由脾胃之氣 無所傷而後 乃能滋養元氣 若胃氣之本弱 飲食自倍 即脾胃之氣既傷 而元氣亦不能充 而諸病之所由生也.”

44) 張問渠: 氣血證治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0年 p.28.

集中하는 곳이므로 “氣海”라 한다^{45) 46)}.

宗氣의 “宗”字는 《醫門法律》⁴⁷⁾에서 “尊”이라 하였으며, 또한 宗氣는 그 모이는 곳이 胸中인데 稱하여 “上氣海”라 하고 또 다른 이름은 膻中이다.

이러한 宗氣는 內在元氣와 外在元氣의 結合體로서 全身元氣의 運動輸布의 本時가 되는 故로 이름하여 宗氣라 한다⁴⁸⁾. 宗氣는 實際에 있어서 營衛之氣와 吸入之清氣로 生成된다^{49) 50)}.

(2) 生成과 分布 :

1) 生成 :

宗氣는 水谷의 精微와 自然界의 清氣로서 生成된다. 飲食物이 脾胃의 受納에 의해 經過되어 腐熟化生되어 水谷精氣가 되고 水谷精氣는 전적으로 脾의 升清作用과 肺의 傳受作用에 依存하고 自然界로 부터 肺로 吸入된 清氣와 더불어 相互結合되어 形成된다.

肺와 脾胃는 宗氣의 形成過程中에서 중요한 作用을 한다^{51) 52) 53)}. 이런 이유로 肺의 呼吸機能과 脾胃의 運化機能의 正常與否에 따라 宗氣의 盛衰에 직접적인 影響을 미친다.

2) 分布 :

宗氣는 形成後 胸中에 分布하여 心肺之脈을 貫注한 후에 두 方面으로 循行한다. 하나는 心臟을 經過하여 向上出于肺하고 循喉而走息道하여, 經脈의 作用이 胸中の 上氣海로 散布되어 經脈으로 進入하여 運行하고⁵⁴⁾, 다른 하나는 아래로는 肺의 肅降作用에 의해서 丹田(下氣海)에 蓄積되어, 足陽明의 氣街에 注入되어 足部로 下行한다⁵⁵⁾. 肺를 通過하여 氣管, 喉嚨을 지나면서 呼吸을 한다⁵⁶⁾.

(3) 主要機能 : 宗氣의 主要機能은 세가지 方面이 있다.

1) 走息道而司呼吸 :

宗氣는 上走息道하여 肺의 呼吸作用을 推

45) 王新華 讀醫隨筆 江蘇科學技術出版社 p.1.

46) 洪元植 : 上揭書 p.303.

靈樞·五味 : “其大氣之搏而不行者 積於胸中 命曰氣海.” 7줄

47) 喻昌 : 上揭書 p.6.

48) 李德新 : 上揭書 p.70. 9~11.

49) 王新華 : 上揭書 p.4. 11~12

“宗氣者 營衛之所合也 出于肺 積于氣海 行于氣脈中 動而以息往來 者也 虛即病寒 實即病熱.”

50) 孫一奎 : 醫旨緒余 宗氣營氣衛氣 中醫基礎理論 p.149.

“宗氣者爲言氣之宗主也. 此氣搏于胸中, 混混沌沌, 人莫得見其端倪”.

51) 洪元植 : 上揭書 p.324.

靈樞·邪客篇 : “五谷入于胃也 其糟粕 津液 宗氣分爲三陰”.

52) 洪元植 : 上揭書 p.303.

靈樞·五味篇 : “穀時入于胃 其精微者 先出于胃之兩焦 以溉五臟 別出兩行營衛之道. 其大氣之搏而不行者 積于胸中 命曰氣海.”

53) 喻昌 : 上揭書 p.4.

“膻中宗氣 主上焦息道 恒與肺胃關通.”

54) 洪元植 : 上揭書 p.324.

靈樞·邪客篇 : “宗氣積于胸中 出于喉 以貫心肺 而行呼吸”.

55) 洪元植 : 上揭書 p.333.

靈樞·刺節眞邪論 : “宗氣留于海 其下者 注于氣街 其上者 注于息道”.

56) 洪元植 : 上揭書 p.303.

靈樞·五味篇 : “出于肺 循喉 故呼即出 吸即入.”

動하므로 “助肺司呼吸”이라 한다. 이른바 言語, 聲音, 呼吸의 強弱은 모두 宗氣의 盛衰와 關聯이 있다. 肺의 呼吸하는 機能은 宗氣와 有關한 故로 臨床上에 있어서 語聲低微, 呼吸微弱, 脈軟無力의 症候는 統稱하여 肺氣不足이나 或 宗氣不足이라 한다^{57) 58)}.

2) 貫心脈而行氣血 :

宗氣가 心脈之中에 貫注入하여 心臟의 血液循環을 推動하는 것을 도와주므로 “助心行血”이라 한다. 그러므로 氣血의 運行과 宗氣의 盛衰는 有關하다. 宗氣의 心臟搏動을 推動하는 作用으로 말미암아 心率和 心律의 機能을 調節한다⁵⁹⁾.

臨床上에서 “虛里”는 搏動의 狀況과 脈象으로 宗氣의 旺盛과 衰少를 感知한다. 만약 搏動이 正常이면 宗氣가 원활한 狀態이고 搏動이 없으면 宗氣가 絶하여 死한다. 그리고 宗氣가 不足하면 心의 行血作用을 도울 수 없어 血行瘀滯가 나타난다⁶⁰⁾.

3) 人體의 視, 聽, 言, 動等의 機能과의 關係 :

宗氣는 運用되어 呼吸, 言語, 運動과 筋力의 強弱等에 關與한다⁶¹⁾.

以上을 綜合하여 敘述하면 呼吸運動과 血液循環에 대한 宗氣는 모두 推動作用을 가지고 있어 《靈樞·邪客篇》에 “宗氣積于胸中, 出于喉嚨, 以貫心脈而行呼吸焉”. 以外에 “宗氣者, 營衛之所合”이라 하였다.

宗氣가 呼吸과 血行을 推動하는 作用을 가지기 때문에 生理機能은 모두 宗氣의 盛衰與否와 關聯이 있다^{62) 63)}.

(4) 病症

대개 言語, 聲音, 呼吸과 心臟 搏動의 強弱等은 모두 宗氣의 盛衰與否와 關聯이 있는데, 《靈樞·海論》篇에는 “氣海有餘者, 氣滿胸中, 息面赤; 氣海不足, 即氣少不足以言.”이라 하여 呼吸이나 氣息의 變化가 宗氣의 虛實을 反映한다고 說明하였다. 또 《素問·平人氣象論》篇에 보면 “盛喘數絕者, 即病在中, 結而橫有積矣, 絕不至曰死. 乳之下, 其動應衣, 宗氣泄也.”라 하여 心臟의 搏動의 變化로서 宗氣의 盛衰를 알 수 있다 하였다. 또한 營氣는 스스로 運動할 수 없어 반드시 宗氣의 힘을 빌어 運行한다⁶⁴⁾.

宗氣가 充足하면 呼吸의 機能이 正常이 되고, 心脈 血行의 運行이 正常이 되는데, 만약

57) 李德新: 上揭書 p.71.

58) 喻昌: 上揭書 p.4.

“息出于鼻 其氣布于膻中. 膻中宗氣 主上焦息道 恒與肺胃關通 或清而徐 或短而促 感足以占宗氣之盛衰”.

59) 洪元植: 上揭書 p.40.

素問·平人氣象論: “胃之大絡, 命曰虛里(相當于心尖搏動部位), 貫膈 絡肺. 出于大乳下, 其動應衣. 脈宗氣也. …乳之下, 其動應衣, 宗氣泄也.”

60) 洪元植: 上揭書 p.333.

靈樞·刺節眞邪論: “宗氣不下, 脈中之血, 凝而留止.”

61) 王新華: 上揭書 p.4. 17~19

“宗氣者 動氣也. 凡呼吸言語聲音 以及肢體運動 筋力強弱者 宗氣之功用也.”

62) 張伯訥: 上揭書 p.150.

63) 王新華: 上揭書 p.4.

64) 王新華: 上揭書 p.70.

氣能生血血能藏氣: “營氣不能自動, 必借宗氣之力以云之.”

宗氣가 不足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呼吸과 血液의 運行에 影響을 미치게 되어 呼吸이 無力, 微弱하거나 語聲低微가 나타나고, 或은 心臟의 搏動이 無力하여 血液의 循環에 障礙가 생겨 심하면 血脈이 凝滯하여 不行하고, 氣血을 照柔하지 못하여 肢體厥冷⁶⁵⁾ 等の 症狀이 생긴다⁶⁶⁾

3. 營氣

(1) 基本意味 ;

營氣는 血과 함께 脈中으로 運行하는 氣로서 營養의 作用이 있고 그 營養함이 豊富하다고 하여 營氣라 稱한다⁶⁷⁾. 營氣와 血은 脈中에 함께 循行하는 고로 兩者는 모두 全身의 營養作用을 가지고 있고, 營氣는 또한 化生하여 血이 되며⁶⁸⁾ 兩者를 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어서 항상 “營血”이라 稱한다⁶⁹⁾. 營氣는 衛氣의 상대적인 表現으로서 陰에 屬하므로 또한 “營陰”이라 하기도 하다⁷⁰⁾.

(2) 生成과 分布 :

1) 生成 :

營氣는 脾胃의 運化에 의한 水谷精氣에 의해서 由來되고 그 水谷精氣 中の 精華로운 部分으로 부터 化生된다. 宗氣가 營·衛氣와 合하여 그 中 血液과 함께 脈中에 있는 것을 “營氣”라 한다^{71) 72) 73)}.

2) 分布 :

營氣는 生産後에 脈中으로 進入하여 脈을 따라 全身으로 運行하는데 內로는 臟腑에, 外로는 肢節에 達하고 끝에서 다시 始作하여 營氣는 함이 없다. 營氣는 十二經脈과 任·督二脈을 通過하여 全身으로 循行하여 五臟에 貫하고 六腑에 絡한다⁷⁴⁾.

十二經循行 : 營氣는 中焦(脾胃)에서 出하여, 먼저 手太陰肺經으로 循行하여 다시 手太陰肺經에서 手陽明大腸經으로 傳導되어 足陽明胃經에 이른다. 以後에 그 傳導는 足太陰脾經, 手少陰心經, 手太陽小腸經, 足太陽

65) 洪元植 : 上揭書 p.335.

靈樞·刺節眞邪篇 : “厥在於足 宗氣不下 脈中之血 凝而留止.”

66) 樊鼎 中醫理法方藥精要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1年 p.176.

67) 王新華 : 上揭書 p.4.

“營氣者 出于脾胃 以濡筋骨 肌肉 皮膚 充滿推移于血脈之中而不動者也”.

68) 洪元植 : 上揭書 p.324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于脈 化以爲血”.

69) 張伯訥 : 上揭書 p.150.

70) 李德新 : 上揭書 p.72.

71) 洪元植 : 上揭書 p.87. 6~7

素問·理論 : “營者 水谷之精氣也 和調于五臟 瀉陳于六腑 乃能入于脈也. 故循脈上下 貫五臟 絡六腑也.”

72) 洪元植 : 上揭書 p.244. 1~2

靈樞·營氣 : “營氣之道 內谷爲寶…精專者 行于經隧 常營不已 終而復始 是謂天地之紀”.

73) 洪元植 : 上揭書 p.246. 3~4

靈樞·營衛生會篇 : “人受氣于穀 穀入于胃…其清者爲營 濁者爲衛 營在脈中 衛在脈外 營周不休.”

74) 張伯訥 : 上揭書 p.150.

膀胱經, 足少陰腎經, 足厥陰肝經으로 循行하고 足厥陰肝經에서 다시 手太陰肺經으로 들어가 營氣가 十二經脈 中 全身을 通行, 流注하는 通路를 構成한다. 이것이 營氣의 十二經脈의 循行이 된다.

任·督脈循行: 營氣가 十二經의 循行時에 하나의 分枝가 있는데, 從肝別出, 上으로는 額部에 이르고 頂을 돌아 項의 中間으로 下行하여 脊骨 아래로 들어가 尾軀部로 入한다. 이것은 督脈의 循行經路이다. 그 脈이 다시 絡陰器하여 上으로 毛際를 지나, 臍中에 入한다. 上으로 腹裡에 入하는 이것은 任脈의 循環이다. 다시 缺分部로 進入한 然後에 아래로 肺中에 入하고 다시 手太陰肺經으로 出하여 營氣가 任 督脈의 循行 路線을 構成한다. 營氣는 十二經脈과 任 督脈을 循行하여 營氣의 十四經流注의 順序를 形成한다. 氣自 自上而下 自下而上, 또 出陰入陽 出陽入陰으로 相互逆轉하므로 循環이 끝이없는 고리와 같다⁷⁵⁾.

營氣의 循行 速度에 관하여 《靈樞·五十營》에 根據하여 계산된 方法으로 人體의 經脈

總 길이는 十六丈二尺인데, 一呼一吸(爲之一息)하면 營氣는 六寸을 運行한다. 一晝夜의 呼吸數는 一萬三千五百息이 되는 故로 呼吸의 數를 계산해 보면 營氣가 一周를 循行하는데 二百七十息이 된다. 一晝夜에 營氣의 循行은 五十회가 된다⁷⁶⁾.

(3) 主要機能 :

營氣의 主要 生理機能에는 血液을 化生하는 것과 全身을 營養하는 두가지 方面이 있다.

化生血液: 營氣가 肺經을 따라 孫脈中에 流入되어 津液과 서로 結合하여 血液을 構成하는 하나의 成分이 된다⁷⁷⁾.

營養全身: 營氣는 脈을 循行하여 全身으로 流注하는데, 臟腑 經絡等 生理活動에 營養物質을 供給한다. 營은 全身의 上下 内外를 運行하여 內로 注入되어 五臟六腑를 滋養하고, 外로 散布되어 皮毛筋骨을 澆灌한다⁷⁸⁾.

(4) 病症

營氣는 津液에서 分泌되고 脈을 貫注하여 血液을 化生한다고⁷⁹⁾ 하여 營氣와 津液이 脈中으로 滲入하고 相合하여 血液을 化生한다.

75) 洪元植: 上揭書 p.244. 1~11

靈樞·營氣: “營氣之道, 內穀爲寶, 穀入於胃, 乃傳之肺, 流溢於中, 布散於外 精專者, 行於經隧, 常營無已, 終而復始, 是謂天地之紀. 故氣從太陰出, 注手陽明. 下行至足, 注大趾間, 與太陰合… 復從足注大趾間, 合足厥陰. 上行至肝, 從肝上注肺… 下注肺中, 復出太陰. 此營氣之所行也, 逆順之常也”.

76) 洪元植: 上揭書 p.243. 4~10

靈樞·五十營: “故人一呼, 脈再動, 氣行三寸, 一吸, 脈亦再動, 氣行三寸: 呼吸定息, 氣行六寸, 十息, 氣行六尺二百七十息, 氣行十六丈二尺, 氣行交通于中, 一周于身… 一萬三千五百息, 氣行五十營于身, … 水下百刻, … 凡行八百一十丈也.”

77) 洪元植: 上揭書 p.246.

“上注于肺 脈乃化而爲血”.

78) 陳自明: 校注婦人良方注釋 江西人民衛生出版社 1983年 p.11.

“營者水穀之精 和調于五臟 灑陳于六腑 乃能入于脈也 源源而來 化生于脾 總統于心 藏受于肝 宣布于肺 施泄于腎 灌溉一身 目得之而能視, 注入于脈 少即澁 充即實 常以飲食滋養 即陽生陰長 變化而爲血”.

79) 洪元植: 上揭書 p.324. 3

靈樞·邪客: “營氣者 必其津液 注之于脈 化以爲血”.

때문에 營氣의 病症은 血과 津液에서 나타난다.

血液은 脈中으로 行하는데 반드시 氣의 固攝作用에 依하고 血液의 正常的인 運行은 氣의 推動과 固攝作用을 通하여 相互 協調한다. 만약 推動이 太過하고 固攝이 不及하면 血이 逸出脈外하여 出血이 나타나고 반대로 推動이 不及하고 固攝이 太過하면 血行이 緩慢하고 流通이 不利하며 심하면 瘀血이 나타난다⁸⁰⁾.

飲食不足하거나 脾胃가 虛弱한 경우 水谷之精氣가 衰少하여 血虛와 津液不足의 症狀이 생기고 以外에 大出血時 津液으로 血量의 不足을 補充하며 脈外의 津液이 不足하거나 失血者는 口乾渴의 症狀이 나타난다.

血液이 變少 變稠한 것이 심하면 流行不利에 이르고 傷津脫液의 現象이 심하면 脈微欲絶의 위험한 狀況이 나타난다⁸¹⁾.

血과 津液은 疾病中에 相互 影響을 미치기 때문에 古代 醫家들은 失血한 사람은 發汗하지 않고 津液이 傷한 사람은 放血하지 않는다 하였다⁸²⁾.

4. 衛氣

(1) 基本意味 :

衛는 “衛護”와 “保衛”의 意味이다. 衛氣는 脈外로 흐르는 氣이고 衛氣는 營氣와 相對되는 말로써 陽에 속하는 故로 “衛陽”이라 稱한다. 衛氣는 그 性質이 標疾滑利하고, 活動力이 強力하고 流動이 迅速하고⁸³⁾, 脈外로 흘러 分肉을 따듯하게 하고 皮毛를 充實하게 하며 腠理를 肥厚케 하고 開闔을 調節한다⁸⁴⁾.

(2) 生成과 分布 :

1) 生成 :

衛氣는 營氣와 함께 하나의 群을 이루는데, 이것은 水谷의 精微로 부터 化生된다⁸⁵⁾. 脾胃의 水谷運化로, 水谷之精微가 化生되어, 精微로움 中에 “標疾滑利”한 性質이 즉 衛氣가 된다⁸⁶⁾.

衛氣와 營氣는 모두 水谷之精微로 부터 化生되는데, 營 衛氣는 그 性質이 같지 않다. 營氣는 그 性이 柔順하여 脈中으로 循行하고, 衛氣는 性이 標疾滑利하여 脈管內에서 制約하지 못하여 脈外로 흐른다⁸⁷⁾.

80) 錢承輝 中醫臟象學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7年 pp.43~44.

81) 錢承輝 上揭書 p.55. 7~16.

82) 洪元植 : 上揭書 p.247. 5~6

靈樞·營衛生會篇 : “奪血者無汗 奪汗者無血”.

83) 洪元植 : 上揭書 p.87.

素問·痺論 : “衛者, 水谷之悍氣.”

84) 羅天益 :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年 p.76~7

“蓋陽氣之爲衛, 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毛, 肥腠理, 司開闔, 此皆衛外而爲固也.”

85) 洪元植 : 上揭書 p.303. 6~7

靈樞·五味篇 : “穀始入于胃, 其精微者, 先出于胃之兩焦, 以溉五臟, 別出兩行, 營衛之道.”

86) 洪元植 : 上揭書 p.87. 7~8

素問·痺論 : “衛者, 水谷之悍氣. 其氣標疾滑利, 不能入于脈也.

姑循皮膚之中, 分肉之間, 熏於 膜, 散于胸腹”.

87) 洪元植 : 上揭書 p.246. 3~5

營衛生會篇 : “人受氣于穀 穀入于胃 以傳與肺 五臟六腑 皆以受氣.

其清者爲營 濁者爲衛 營行脈中 衛行脈外 營周不休

五十而復大會 陰陽相貫 如環無端”.

衛氣의 生成에 관하여 歷代 醫家들은 아래와 같이 認識하였다.

① 衛氣出于上焦：衛氣는 肺의 宣發作用을 통하여 皮膚를 熏蒸하고, 身體를 充하고, 皮毛를 潤澤하게 하는 作用을 한다고 認識하였다⁸⁸⁾.

② 衛氣出于中焦：營衛는 모두 中焦의 水谷之精微로 부터 化生되는데 이러한 觀點은 《靈樞·營衛生會》篇에서 처음 言及되었다. 後世의 學者에 의해 進一步하여 《醫宗金鑑·傷寒論註》에는 “營衛者皆後天之穀氣也.”라 했다.

③ 衛氣出于下焦：營氣는 中焦에서 出하고, 衛氣는 下焦에서 由來한다⁸⁹⁾

위의 敘述한 部分은 서로 觀點이 다르고 強調하는 바가 달라 서로 對立되는 것 같이 보이나 실제상에는 統一된 것으로 衛氣는 元氣의 한 部分이 되고 化生에는 脾·肺·腎의 三臟과 密接한 關聯이 있다.

2) 分布：대략 세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① 營氣를 따라 運行하는 것이다⁹⁰⁾ 91).

② 낮에는 陽으로 循行하고, 밤에는 陰으로 행한다⁹²⁾ 93). 다시 말하면 衛氣의 運行은 낮에는 陽分으로 行하여 足太陽膀胱經의 睛明穴에서 始作하여 目으로 出하고, 六腑를 돌아 腎經으로 가는 것이 一週가 된다. 夜間에는 陰分을 行하는데, 足少陰腎經에서 시작하여 五臟을 돌아 그 循行은 相剋의 順序가 되는 故로 腎·心·肺·肝·脾로 傳하여 다시 腎으로 가서 陰이 다하고 陽이 出하여 目에서 合한다. 낮에는 陽으로 二十五行하고 밤에는 陰으로 二十五行하여 晝夜로 五十行을 循行한다.

그러므로 衛氣는 낮에 六腑를 끼고 陽으로 二十五週하고, 밤에는 五臟을 따라 陰으로 二十五週한다⁹⁴⁾.

③ 衛氣는 全身으로 散行하는데, 外로는 皮膚之中, 筋骨, 分肉之間에 이르고, 内로는

88) 楊維傑：皇帝內經靈樞譯解 大一書局有限公司 中華民國65年 p.271.

靈樞·決氣：“上焦開發，宣五穀味，熏膚充身澤毛，霧露之溉，是謂氣”。

89) 洪元植：上揭書 p.246. 15

靈樞·營衛生會篇：“營出于中焦，衛出于下焦”。

90) 本間祥白：上揭書 pp.211~212.

難經 三十難：“營氣之行 常與衛氣相隨不？ 然：經言人受氣于穀，穀入于胃，乃傳與五臟六腑，五臟六腑皆受於氣 其清者爲營，濁者爲衛，營行脈中，衛行脈外，營周 不息，五十而復大會，陰陽相貫，如環之無端 故知營衛相隨也”。

91) 張介賓：類經 營衛三焦 中醫基礎理論 p.151.

“雖衛主氣而在外 然亦何嘗無血，營主血而在內 然亦何嘗無氣。

故營中未必無衛 衛中未必無營 但行于內者 便謂之營 行于外者 便謂之衛 此人身陰陽交感之道分之即二 合之即一而已。”

92) 洪元植：上揭書 p.346. 7

靈樞·大惑論：“夫衛氣者，晝日上行于陽，夜行于陰。”

93) 洪元植：上揭書 p.262. 9

靈樞·口問篇：“衛氣晝日行于陽，夜半即行于陰”。

94) 洪元植：上揭書 p.337. 4~17

靈樞·衛氣：“衛氣之行，一日一夜五十周于身，晝日行于陽二十五周，夜行于陰二十五周，周于五臟，是故平旦陰盡，陽氣出于目，目張 即氣上行于頭，循項下足太陽，循背下至小趾之端，其散者，別于目銳眥，下手太陽，下至手小指之間外側，其散者，別於目銳眥，下足少陽，注小趾次趾之間，以上循手少陽之分，側下至小指之間別者以上至耳前，合于 脈，注足陽明，以下行至跗上，入五趾 之間，其散者，從耳下下手陽明，入大指之間，入

胸腹, 臟腑, 膏膜 등으로 가서 人體의 어느 한 부분도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⁹⁵⁾.

(3) 主要機能: 防禦, 溫照, 調節과 睡眠의 네 가지의 方面으로 表現된다.

① 護衛氣表, 防禦外邪入侵: 衛氣의 하나의 作用은, 氣의 防禦機能으로 表現되고 衛氣는 皮膚之中에 分布하여 腠理가 開闔을 調節하고, 外部의 邪氣가 들어올 때 人體에 侵襲하지 못하게 하는 作用을 하여 邪氣를 밖으로 排出한다⁹⁶⁾.

② 溫養臟腑, 肌肉, 皮毛等: 衛氣의 하나의 作用으로 氣의 溫照作用으로 表現된다. 衛氣는 體溫을 維持하고, 臟腑의 生理活動이 적절히 維持될 수 있도록 溫度의 條件을 維持한다. 衛氣는 肌肉과 皮膚等에 대하여 熏蒸함으로써, 肌肉을 充實하게 하고, 皮膚를 潤澤하게 한다^{97) 98)}.

③ 調節控制腠理的開闔, 汗液의排泄: 張介賓의 《景岳全書·汗症》⁹⁹⁾에 보면, “汗發于陰而出于陽, 此氣根本即由陰中之營氣, 而其啓閉即由陽中之衛氣”라 說明하여 營血과 津液은

汗之化源이라 하여 汗出의 排出 與否는 衛氣의 控制와 調節에 依한다고 說明하였다. 이러한 衛氣의 作用은 氣의 固攝作用에 의해 表現된다. 가령 人體의 肌表가 外邪의 侵襲을 받으면 腠理가 閉塞되고, 衛氣가 發泄하지 못하여 無汗而身熱하게 된다.

또한 衛氣가 虛하여 固攝이 無力하여 自汗의 症狀이 나타나게 된다¹⁰⁰⁾.

④ 睡眠의 影響: 衛氣의 循行과 人間의 睡眠에는 密接한 關聯이 있다. 衛氣가 體內에 循行할 때에는 人間은 睡眠을 하게 되고 衛氣가 睛明穴을 나와 體表를 循行할 때에는 人間은 깨어 있다. 단약 衛氣의 循行이 異常이 있어서 寤寐의 異常이 나타난다. 衛氣가 陽分을 循行하는 時間이 길 때에는 잠이 적고, 陰分에 行하는 時間이 길 때에는 잠이 많아지게 된다^{101) 102)}.

(4) 病症

衛氣의 主要機能은 溫分肉, 充皮膚, 肥주理, 司開闔의 作用이 있다. 外邪가 人體에 侵入하면 우선 衛氣와 더불어 相爭하므로 衛氣는

掌中, 其至于 足也, 入足心, 出內踝, 下行陰分, 復合于目, 故爲一周. 陽盡于陰, 陰受氣矣. 其始入于陰, 當從足少陰注于腎, 腎注于心, 心注于肺, 肺注于肝, 肝注于脾, 脾復注于腎爲一周.”

95) 洪元植: 上揭書 p.87. 7~8

素問·痺論: “衛者 水谷之悍氣也 其氣慄疾滑利 不能入于脈也 故循皮膚之中 分肉之間 熏于膏膜 散于胸腹”.

96) 醫旨緒余: 氣血論 p.77.

“衛氣者 爲言護衛周身 溫分肉 肥腠理 不使外邪侵犯也”.

97) 王新華: 上揭書 p.4. 12~14 氣血精神論: “衛氣者 熱氣也. 凡肌肉之所以能溫 水谷之

所以能化者 衛氣之功用也. 虛即病寒 實即病熱.”

98) 洪元植: 上揭書 p.288. 4~5

靈樞·本藏篇: “衛氣和, 即分肉解利, 皮膚調柔, 理緻密矣.”

99) 張介賓: 上揭書 p.238.

100) 張介賓: 上揭書 p.237.

“人以衛氣固其表 衛氣不固即表虛自汗 而津液爲之發泄也”.

101) 陳夢雷: 醫部全錄 서울 成輔社 1982年 p.1079.

102) 洪元植: 上揭書 p.346. 6~9

“此人腸胃大而皮膚濕 而分肉不解焉 腸胃大則衛氣留久 皮膚濕則分肉不解 其行遲...留于陰也久 其氣不清 則欲臥矣.”

外感病과 密接한 關聯이 있고, 또 衛氣는 臟腑를 溫煦, 透達하는 作用이 있어 內傷七情, 飲食, 勞倦等이 衛氣를 傷할 수 있다.

衛氣가 不足하면 人體의 肌表가 固衛失常하여 防禦機能이 低下되어 外邪의 侵襲을 쉽게 받고, 또 病後에도 잘 낫지 않으며 臟腑의 氣溫이 低下되고 體質이 下降되며, 皮膚와 肌肉의 感覺異常이 나타나고 腠理의 開闔이 失調되어 汗出의 症狀이 나타난다.

만약 衛氣의 循行이 異常이 생기면 寤寐의 異常이 나타난다. 衛氣가 陽分을 行하는 時間이 많으면 少寐하고, 陰分의 時間이 길면 多寐한다¹⁰³⁾.

《內經》中에는 衛氣의 異常을 일컬어 “衛氣失常”이라 하여 하나의 篇으로 言及하였는데, 衛氣의 失常은 衛氣 運行的 異常과 衛氣의 不足을 말하였다¹⁰⁴⁾. 衛氣의 不足은 衛氣의 虛損으로 衛氣의 量이 相對的 或은 絶對的 不足을 意味하고^{105) 106)}, 衛氣의 運行에 障礙를 받으면 衛氣逆亂이라 하는데 衛氣의

特徵은 끊임없이 運行하여 生理 機能을 발휘하기 때문에 일단 凝滯하면 病이 반드시 생긴다. 한편 衛氣가 失常되면 크게 두가지의 病機로 分類할 수 있는데 하나는 衛氣가 虛損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衛氣가 凝滯된 것이다.

衛氣가 凝滯되어 나타나는 病機로는 痺症이 생기고¹⁰⁷⁾, 衛氣가 經脈을 鬱滯하여 變化而熱하여 癰疽가 발생하고¹⁰⁸⁾, 營衛氣가 經脈中에 流注하여 血氣가 不行하고 따라서 衛氣가 不通하고 壅滯而不得行하여 熱이 發生한다¹⁰⁹⁾.

衛氣가 陽經과 陰經에서 障礙를 받으면 運行이 遲緩되고 睡眠의 異常을 招來한다¹¹⁰⁾. 또 寒疝과 衛氣와의 關係에 관하여 言及하였다¹¹¹⁾.

衛氣가 虛損이 되면 衛氣의 量이 相對的 或은 絶對的 不足을 意味하고 반드시 營氣의 不足을 招來한다¹¹²⁾.

103) 李德新：上揭書 pp.77~78.

104) 謝立平外 衛氣失常初探 陝西中醫, 第15卷, 第6期, 1994年, pp.265~266.

105) 洪元植：上揭書 p.70. 15~16

素問·逆調論：“營氣虛即不仁，衛氣虛即不用，營衛俱虛即不仁且不用”。

106) 洪元植：上揭書 p.193. 8~9

素問·疏五過論：“病深者，以其外耗于衛，內奪于營”。

107) 洪元植：上揭書 p.336. 14~15

靈樞·刺節真邪論：“衛氣不行，即爲不仁”。

108) 洪元植：上揭書 p.347. 9~11

靈樞·癰疽：“夫血脈營衛，周流不休，…寒邪客于經絡之中，即血泣，血泣不通即衛氣歸之，不得復反，故癰腫”。

109) 洪元植：上揭書 p.348. 22~23

靈樞·癰疽：“營衛稽留於經脈之中 即血泣而不行 不行即衛氣從之而不通 壅滯而不得行 故熱”。

110) 洪元植：上揭書 p.346. 8~10

靈樞·大惑論：“衛氣行留久 皮膚濕 分肉不解 即行遲。

留于陰也久 其氣不清 即欲瞑 故多臥矣。

…衛氣之留于陽也久 故少瞑焉。”

111) 李克光：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年 p.259.

“腹痛，脈弦而緊，弦即衛氣不行…即爲寒疝。”

112) 洪元植：上揭書 p.246. 12~13

靈樞·營衛生會：“營氣衰少而衛氣內伐”。

III. 總括 및 考察

中國 古代 哲學 分野의 氣에 대한 認識은 宇宙間의 萬物이 모두 氣로 構成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宇宙間의 氣는 두가지의 形態로 存在하는데, 하나는 擴散의 狀態로서 微小하고 질세없이 움직여 직접 觀察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無形”이라 稱하고, 다른 하나는 凝聚의 狀態로서 작고 擴散된 氣가 凝集하여 實體를 構成한다고 하여 “形質”이라 하였다.

習慣上 擴散의 狀態의 것을 “氣”라 하고, 形體의 實體를 把握할 수 있는 것을 “形”이라 한다¹¹³⁾.

經絡은 身體의 內外·表裏·上下·左右의 各 部分에 중요한 作用을 維持하고 그 經絡에는 主幹과 分枝가 있는데 內部로는 臟腑에 外部로는 五管 七竅 및 四肢百骸에 分布되어

全身을 連絡하고 氣血을 運行하여 機能을 發揮한다^{114) 115)}.

元氣는 腎臟에 간직된 氣로서 腎精은 人體 生命活動의 基本物質이 되고 腎氣는 生命活動의 基本 機能이라고 認識하였다. 그리하여 古代 文獻에서는 元氣를 “十二經之根本”¹¹⁶⁾이라 하였다.

한편 衝脈¹¹⁷⁾은 腎間動氣가 所在하는 胞中에서 起하여 足陽明과 宗筋에서 會合하고 足少陰과 小腹에서 竝行하여 水谷에서 化生된 氣血과 腎의 先天之精은 衝脈에서 會聚한다. 그리고 腎間動氣 즉 元氣는 元氣의 別使인 三焦의 氣가 行하는 任脈과 陽明脈間의 衝脈部分을 行한다^{118) 119)}. 故로 衝脈은 先天의 眞氣와 後天宗氣의 通路와 關係가 있다¹²⁰⁾.

元氣는 腎과 命門에 根據를 둔 氣로서 이러한 元氣의 機能은 視床下部-腦下垂體-標의 器官을 軸으로하는 호르몬의 機能을 包

113) 張伯訥：上揭書 pp.139~140.

114) 林鍾國：針灸治療學 서울 集文堂 1983年 p.131.

115) 洪元植：上揭書 p.269. 1~2

靈樞·海論：“夫十二經脈者 內屬於臟腑 外絡於肢節”.

116) 本間祥白：上揭書 p.47.

117) 葉霖：難經正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5.

“人身陰陽原氣 皆起于下 故《內經》以廣明以後 即爲太衝 太衝之地 屬之 少陰 少陰之前 乃爲厥陰. 其部爲血海 常與太衝藤精氣而上 灌溉陰陽 斯即 人之元氣精氣 皆起於下也. 由下而起 即分三道而上 其陽者 從少陰之後 行太陽夾脊中道 以總諸陽 名爲督. 其陰者 由前陰之道而上 行陽明之表 中以總統諸陰 其名爲任. 而中央一道 即脈氣血海 藤精氣而上 積於胸中爲 宗氣 以司呼吸 其名爲衝. 是氣即與陽明胃氣俱住中洲 亦與血海之營氣 俱行十二經脈者也. 督脈任脈 皆氣胞中 一行脊 一行腹 會於承漿 衝脈即由 胞中上行 俠臍而會於咽喉 三脈同氣於下極 一源三支 故??? 不曰衝任脈 而? 其名曰太衝. 是太衝者 以一身之精氣升降言之 不獨爲血海言之也. 夫胃中飲食之精汁 奉心化血 下入胞中 即由衝脈導之使下 故《內經》云女子二七而天癸至 太衝脈盛 月事以時下也. 是胞中爲先天腎氣後天胃血交會之所 衝脈起於胞中 導先天腎氣上行 以交於胃 導後天陰血下行 以交於腎 導氣以上 導血以下. 通於腎 麗於陽明 此衝脈之所司也.

118) 滑壽：難經本義 台南 世一書局 1985 p.126.

“臍下腎間動氣者 人之生命也 十二經之根本也 故名曰原 三焦者 原氣之別使.”

119) 王九思：難經集注 台北 臺灣中華書局 1986 p.164.

“衝脈起於氣街 并足陽明之內 挾任脈之外 上行至胸中而散 皆起於兩間 此者三焦原氣之府也”

120) 吳謙：醫宗金鑑(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655.

“衝脈起于腹氣街 後天宗氣氣衝來 并于先天之眞氣 相并俠臍上行街 大氣至胸中而散 會合督任充身環 分布臟腑諸經絡 名之曰海不爲乘”.

括한다고 생각한다.

宗氣는 營氣와 衛氣는 體內를 循行할 때 일종의 推動하는 能力이 필요한데 이러한 種類의 動力은 經絡學說에서 宗氣라 한다. 宗氣는 水谷의 精微와 大氣가 吸入되어 서로 結合하여 이루어지고 胸膈部에서 모여진다. 또한 左側乳下에서 그 搏動狀態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121, 122}. 그 推動能力이 매우 강하면 心脈을 貫通하여 上으로 肺에서 出하고 咽喉部에 到達하며 아래로 향하여 胸腹의 氣街部位에 注輸하고 더불어 氣街를 通過하여 足部에 이르는데 經絡中의 營·衛氣는 능히 上下를 貫通하고 主流散布하는데 宗氣가 이러한 作用을 促進시킨다.

宗氣와 元氣는 비록 그 性質이 같지 않으나 宗氣는 上部에 積하여 後天之氣가 되고, 元氣는 下部에 藏하여 先天之氣에 속하는데 둘은 서로 密接한 關聯이 있다.

또한 宗氣는 胸中에 位置하여 心肺機能의 能力을 元氣로 부터 激發된다. 宗氣의 機能活動과 元氣는 關係가 매우 密接하여 元氣가 充足하면 宗氣가 旺盛하여 心肺의 機能이 良好하고 元氣가 不足하면 宗氣가 虛衰하여 肺의 呼吸機能과 心의 搏動狀態에 障礙가 생긴다. 宗氣의 虛損이 더욱 深化되면 元氣의 損傷을 招來하여 더욱 더 심하여 元氣의 虛脫이 나타나 生命이 위태롭다.

《素門·平人氣象論》에 나오는 “虛里”¹²³는 心尖搏動의 部位狀態를 알 수 있는 곳으로 宗氣는 肺脈을 貫通하여 心臟을 拍動케 하고 血行을 通暢시킨다. 일단 宗氣가 虛泄하면 필연적으로 心肺의 陽氣不足을 惹起시켜 血行이 鬱滯하고 精神이 不振함이 나타나고, 呼吸無力, 語聲低微, 心悸氣短, 爪胛青紫, 喘促難臥, 面浮足腫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¹²⁴.

營氣에 있어서 血液이 流走하는 通路方面에 關하여 經絡學說 中에서 明確히 記述되어 있는데, 例를 들어 “經脈者, 受血而營之.”¹²⁵, “經之動脈, 其至也 亦時嚙起 其行于脈中 循循然. 其至寸口中手也 時大時小…”¹²⁶이라 하여 血液이 脈管을 流行하는 搏動의 狀態를 描寫하였다.

經絡의 面에서는 “陽絡傷即血外溢”, “陰絡傷即血內溢”¹²⁷ “諸脈之浮而常見者, 皆絡脈也”¹²⁸ 등으로 記載되어 있어 經脈은 血液이 流行하는 通路라 說明하였다. 단, 血液은 全身을 끊임없이 循環하여 營氣와 密接한 關聯이 있어서 營氣를 血氣라 하기도 한다.

營氣가 十二經脈을 循行할 때 하나의 分枝가 따로 있는데 手太陰肺經에서 任脈으로 傳하여 膈, 頸部를 따라 上行하여 肘, 臂에 이르고 督脈과 연결되어 前頂에 이르러 背脊을 따라 아래로 向하여 陰部를 끼고 돌아 任脈에 連接되고 胸腹部에 上行하여 다시

121) 洪元植: 上揭書 p.324.

靈樞·邪客: “宗氣積于胸中”.

122) 洪元植: 上揭書 p.40.

素問·平人氣象論: “胃之大絡…出于左乳下”

123) 洪元植: 上揭書 p.336. 16~17

124) 牟重臨, 宗氣論說, 浙江黃岩市中醫院, 四川中醫 1993年 9期 p.14.

125) 洪元植: 上揭書 p.237. 4.

126) 洪元植: 上揭書 p.57.

127) 洪元植: 上揭書 p.319. 10~11.

128) 洪元植: 上揭書 p.233. 28.

手太陰肺經에 連繫된다. 이리하여 十四經經脈의 循環流走 通路를 構成한다¹²⁹⁾.

人에는 三焦가 있는데 宗氣는 上焦에서 出하고 胸中에 모이고 膈中에 모인다. 喉嚨에서 나와 司呼吸하는 營氣는 陰精之氣이다. 中焦之氣로 말미암아 陽中之陰者는 上焦의 氣를 따라 下焦로 내려가 이 陰氣가 生하는 고로 淸者爲營이다. 營氣는 中焦에서 出한다. 營氣는 宗氣를 따라 經隧之中으로 행하여 營行脈中이라 한다. 衛氣는 陽精之氣이고 下焦의 氣로 말미암아 陰中有陽者는 中焦之氣를 따라 上焦로 升하여 陽氣가 生한다. 故로 濁者爲衛라 하고 衛氣는 下焦에서 出한다고 했다. 衛氣는 性質이 標悍이고 宗氣의 循行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各 經絡의 皮膚 分肉之間으로 循行하는 故로 衛行脈外라 한다¹³⁰⁾.

衛氣는 營氣와 마찬가지로 그 生成에 있어서 飲食物의 精華로움에서 化生되어지는데 “水谷之悍氣”¹³¹⁾라 稱하고 더불어 衛氣를 說明할 때에 “標疾滑利”¹³²⁾라 하여 이른바 “悍氣”와 “標疾滑利”는 散布되는 能力이 매우 強함을 描寫하고 있고 滲透되는 部位가 매우 廣範圍함을 意味한다.

人體를 循行하는 形式은 營氣와 서로 달라 營氣는 經脈之中을 循行하고 衛氣는 經脈中

을 循行할 뿐만 아니라 經脈外의 周邊部位로도 擴散되는 것이다. 醫家들은 文獻에서 “營行脈中, 衛行脈外”¹³³⁾ 등을 強調한 경우도 있었으나 “衛氣先行皮膚, 先充絡脈”¹³⁴⁾에 根據를 두어 經과 絡은 직접적으로 통하며 衛氣가 이미 絡脈을 充滿하여 運行하므로 당연히 經脈으로도 運行하는 것이다. 또 “人有 大谷十二分, 小谿三百五十四名…此皆衛氣之所留止, 邪氣之所客也, 鍼石緣而去之.”¹³⁵⁾와 같이 臨床上에서 經絡의 穴位를 刺針하는 것은 調氣에 重點을 둔 것이다. 이른바 “故 順皮膚之中, 分肉之間, 熏于膏膜, 散于胸腹.”¹³⁶⁾이라 하여 衛氣의 循行이 線에서 面으로 擴散되고 그 擴散部位가 매우 廣範圍 함을 強調한 것이다.

即 衛氣는 晝間에는 頭面 體幹 四肢等の 體表部分에 擴散되는데 夜間에는 體幹의 內臟에 溫藏되어 運行한다.

走行의 情況을 살펴보면 첫째, 衛氣는 一經에 다음 經脈 流注의 順次대로 待機하였다가 循環하는 것이 아니고 同時에 經絡과 肌膚에 散布流注되는 것이다. 즉 胃中에서 生成된 衛氣가 頭, 目部로 上行하여 腦로 進入하는데¹³⁷⁾. 그 다음으로 衛氣는 全身으로 散布되는 것이다.

129) 王執中：針灸資生經十四經發揮合刊 旋風出版社 中華民國 66年.

130) 陳夢雷：上揭書 p.985.

靈樞 經脈篇 馬蒔曰：“言人身有前三焦者 宗氣出于上焦 即所謂積于 胸中 于謂之積于 中也. 出喉 而司呼吸其營氣者 陰精之氣也 由中焦之氣…故謂之淸者爲營 又謂之營氣出于中焦者是也. 其衛氣者 陽精之氣也…然衛氣之陽性標悍 不隨宗氣而行 而自行于各經皮膚 分肉之間 故謂之衛行脈外者是也.”

131) 洪元植：上揭書 p.87. 7.

132) 洪元植：上揭書 p.87.

133) 本間祥白：上揭書 p.212.

134) 洪元植：上揭書 p.234. 1.

135) 洪元植：上揭書 p.28. 18~19.

136) 洪元植：上揭書 p.87.

137) 洪元植：上揭書 p.311 9~10

“胃氣上注于肺, 其悍氣上衝頭者, 循咽, 上走空竅, 循眼系, 入絡腦”.

則 衛氣는 眼目部에서 同時에 手足의 三陽經으로 擴散되어 全身의 肌肉皮膚에 신속히 霧散하여 四肢末端에 到達하는데, 그 循行이 끝이 없다¹³⁸⁾.

衛氣가 手脂와 足趾에 到達한 然後에는 手足의 三陰經部에 散布되어 經絡의 交叉, 交會, 表裏關係 및 其他 여러 種類의 經路를 통해서 流注를 따라 通過해서 다시 眼目部로 循行하여 會合한다¹³⁹⁾.

夜間에는 衛氣가 體腔의 內臟에 집중하여 언제나 足少陰經에서 腎으로 注入하고 腎에서 心으로 行하듯이 相克의 順序로 順行한다.

衛氣가 不足할 때에는 人體의 肌表는 固攝機能을 失調하여 防禦機能이 低下되고 外邪의 侵襲을 받기가 쉽고 病이 난 後에도 낫기가 어렵고, 臟腑의 機能이 低下되고, 體質이 下降되고, 皮膚와 肌肉의 感覺異常이 나타나고, 腠理의 開闔機能이 失調하여 汗出의 症狀이 나타난다.

經絡의 主要機能은 經絡의 開闔, 樞의 作用을 통하여 衛氣가 機體內外로 輸布되어 나타나는데, 이러한 種類의 機能이 일단 失常이 되면 邪氣가 반드시 經脈으로 侵入하여 여러가지 傳變을 惹起하여 最後로는 陰陽相離를 일으켜 精氣가 消失된다. 三陰三陽經의 開, 闔, 樞의 機能이 서로 같지 않으므로 各 經絡의 機能이 失調되면 病理 現狀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折”이라 한다¹⁴⁰⁾.

營氣와 衛氣는 物質의 分布와 機能上에서 일정한 區別이 있는데 營氣는 그 性質이 清

長하고, 脈中을 行하고, 營養周身하는 機能이 있다. 또한 衛氣는 그 性質이 燥疾滑利하며, 脈外를 行하며, 臟腑를 溫養하고, 體表를 衛護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다. 營氣는 主內守하고, 屬陰하며, 衛氣는 主外衛하고, 屬陽하며, 二者의 運行에는 協調가 必需的이며 일정함을 維持하여, 그 正常的인 機能을 維持한다. 營氣와 衛氣는 相互作用을 하여 나누면 들이되고 합치면 하나가 된다.

營·衛氣는 中焦와 下焦에서 出하여 全身을 循環流走하고 各 臟腑와 組織器官을 營養하고 人體의 外邪를 防禦하는 機能을 하며, 淋巴系는 飲食物이 胃로 들어가 小腸에서 吸收되고 그 중에서 脂肪營養成分이 乳糜管으로 들어간 후에 胸導管에 이르러 靜脈으로 進入하여 全身을 循環하고 毛細血管에 이르러 組織으로 滲入한다. 그리하여 組織液을 만들고 組織을 營養하여 淋巴系로 吸收 通過한다. 營氣는 脈管内를 循行하는 淋巴液과 類似하고, 衛氣는 脈外를 흐르는 免疫細胞의 組織液과 密接한 關聯이 있어 앞으로 研究해 불 價値가 있다¹⁴¹⁾.

以上의 內容을 綜合的으로 살펴보면 元氣는 經絡의 機能活動의 基礎이며, 宗氣는 營衛氣가 循行할 수 있도록 推動의 作用을 하며, 營氣와 衛氣는 宗氣의 推動作用을 받아 全身을 循行하는데 이러한 氣들은 經氣에 歸納할 수 있다¹⁴²⁾.

그리고 經氣를 《素問·離合眞邪論》에 表現하기를 “眞氣者, 經氣也”¹⁴³⁾라 하였고, 眞氣

138) 洪元植 : 上揭書 p.324. 4~5

“衛氣者, 出其悍氣之燥疾, 而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 而不休者也”.

139) 皇甫謐 : 針灸甲乙經譯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年 p.83.

一卷 : “衛氣之在身也 上下往來無已”.

140) 劉孔藤, 經絡辨證概論 厦門大學出版社. 1989年 p.54.

141) 龔啓華 探討經脈和淋巴管 中國針灸 1986年 第4期 pp.36~37.

142) 上海中醫學院, 針灸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4年 pp.7~9.

143) 洪元植 : 上揭書 p.57. 21.

는 自然界의 大氣와 水穀之精氣가 서로 合하여 生成된 것으로 人身을 充實하게 하는 作用을 한다 하였다¹⁴⁴⁾.

IV. 結 論

人體의 經氣의 種類 中에서 元氣, 宗氣, 營氣, 衛氣의 生成과 分布, 作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元氣

元氣는 人體 生命活動의 根本으로서 父母로 부터 받은 先天之氣인 腎中精氣에서 化生되며, 三焦의 經脈을 따라 十二經脈과 任督脈을 循環하고, 人體의 生長과 發育을 推動하고 臟腑와 經絡等 組織氣管의 生理機能을 溫照하고 激發하여 人體 生命活動의 原動力이 된다.

2. 宗氣

宗氣는 水谷의 精微와 自然界의 大氣로 生成되고, 胸中에서 分布하여 心肺之脈을 貫注하여 위로는 肺에서 經脈으로, 아래로는 丹田에서 足陽明의 氣街로 注入 足部로 下行한다. 宗氣는 呼吸을 主管하고 血行의 推動을 도와주며, 人體의 視, 聽, 言, 筋力의 強弱等에 關與한다.

3. 營氣

營氣는 水谷精氣의 精華로움에서 化生되고, 脈中에 進入하여 十二經脈과 任督脈을 一日에 五十回를 循環하고 津液과 合하여 血

液을 構成하며, 全身을 流注하여 臟腑와 經絡等 生理活動에 營養物質을 供給한다.

4. 衛氣

衛氣는 營氣와 함께 하나의 群을 이루고, 水谷精氣中 慄疾滑利한 性質이 衛氣가 되며 全身을 散行하여 內로는 胸腹, 臟腑를 外로는 皮膚之中, 筋骨, 分肉之間等を 循行하고, 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司開闔의 作用을 가져 外邪의 侵襲을 막고 體溫을 維持하고 汗出의 機能을 調節하며 睡眠에도 影響을 미친다.

參 考 文 獻

1. 權寧斗：東垣脾胃論譯釋 서울 大星文化社 1992年.
2. 金完熙, 崔達永：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85年.
3. 朴贊國：臟象學 서울 成輔社 1992年.
4. 林鍾國：針灸治療學 서울 集文堂 1983年.
5. 丁奎萬：東醫小兒科學 서울 杏林出版 1985年.
6. 洪元植：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年.
7. 具炳壽：氣의考察 東國大學大學院 博士課程 1993年 第三學期 中間發表.
8. 江蘇省衛生廳：中醫基出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1年.
9. 江育仁：中醫兒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年.
10. 羅天益：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年.
11. 劉孔藤：經絡辨證概論 廈門大學出版社 1989年.

144) 洪元植：上揭書 p.336.

素問 刺節眞邪論：“眞氣者，所受于天，與穀氣并而充身也”。

12. 樊鼎：中醫理法方藥精要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1年。
13. 葉霖：難經正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年。
14. 楊維傑：皇帝內經靈樞譯解 大一書局有限公司 中華民國 65年。
15. 吳謙：醫宗金鑑(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3年。
16. 王九思：難經集注 台北 臺灣中華書局 1986年。
17. 王叔和：圖註難經脈訣 大孚書局 中華民國 66年 卷四。
18. 王新華：讀醫隨筆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 王執中：針灸資生經十四經發揮合刊 旋風出版社 中華民國 66年。
20. 喻昌：醫門法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1. 上海中醫學院：針灸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4年。
22. 李德新：氣血論 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0年。
23. 張介賓：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8年。
24. 張介賓：金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年。
25. 張問渠：氣血證治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0年。
26. 張伯訥：中醫基礎理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年。
27. 錢承輝：中醫臟象學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7年。
28. 陳夢雷：醫部全錄 서울 成輔社 1982年。
29. 陳士鐸：石室秘錄 서울 大星文化社 1993年。
30. 陳自明：校注婦人良方注釋 江西人民衛生出版社 1983年。
31. 滑壽：難經本義 台南 世一書局 1985年。
32. 皇甫謐：針灸甲乙經譯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年。
33. 龔啓華：探討經脈和淋巴管 中國針灸 1986年 第4期 pp.36~37.
34. 牟重臨：宗氣論說 浙江黃岩市中醫學院 四川中醫 1993年 第9期。
35. 謝立平外：衛氣失常初探 陝西中醫, 第15卷, 第6期, 1994年。
36. 張克敏：元氣恒動生命觀淺議 山西中醫 1993年 9卷 第4期。
37. 傅杰英：衛氣病機初探 廣州中醫學院 新中醫 1992年 第5期。
38. 本間祥白：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